

금당(아스카 시대 국보)

아스카 시대(593~710 년)에 지어진 금당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, 내부에는 호류지 절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모셔져 있습니다. 오층탑과 함께 호류지 절 서원 가람의 중심이 되는 건축물입니다. 금당은 훌륭하게 장식되어 있으며, 천장에는 봉황과 중앙아시아의 악기를 든 천인(천상의 악사)이 달린 3 개의 천개(단집: 불상 위에 만든 작은 집 모형)가 걸려 있습니다. 중앙의 천개 아래에는 쇼토쿠 태자(574~622 년)의 등신으로 만든 석가여래좌상이 있고 양 옆에는 2 구의 협시가 보좌하고 있습니다.

동쪽 천개 아래에는 병으로 고생하던 요메이 천황(~587 년)을 추모하며 치유와 의약의 부처인 약사여래의 좌상을 안치했습니다. 서쪽 천개 아래에는 정토의 부처인 아미타여래의 상이 모셔져 있고 양 옆에는 2 구의 협시가 서 있습니다. 이 삼존상은 쇼토쿠 태자의 모친인 아나호베노 하시히토 황후(~621 년)를 기리기 위해 안치한 것입니다.

사천왕상은 금당 내의 행운의 여신인 길상천과 전쟁의 신이자, 국가의 수호신인 비사문천의 목조상 옆에 서 있습니다.

또한 과거에는 금당 벽 전체에 정토도와 보살상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었지만, 화재로 소손되어 보존을 위해 철거되었습니다. 현재는 원본을 모사해 재현한 벽화가 금당의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.